

Landscape Review

Vol.12 조경정보

Contents

연안 · 도서

02 연안 및 도서의 경관관리 _ 강신겸

06 연안 및 도서의 경관과 생태문화 _ 박문호, 성종상

08 Information

11 Issues & News



연안 및 도시의 경관관리

강신겸 Kang, Shin Kyum · 전남대 교수

연안 및 도시 경관의 생태문화적 의미

섬은 또 하나의 삶터이고 쉼터이다. 아름다운 포구가 있고, 순박한 사람들이 산다. 발길이 닿지 않은 섬에는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 동·식물이 있으며, 섬을 둘러싼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자원의 보고이다. 이런 풍성한 산물과 환경을 바탕으로 발달한 음식과 정감어린 시투리, 섬민속과 생활자원은 매력적인 문화콘텐츠이다.

연안 및 도시 경관은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관으로서 육지에서의 일반적인 경관, 도시경관과는 다른 독특한 경관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안경관의

공간적 체계는 연안(coastal zone), 수제부(water-front), 수변(water side) 세가지로 구분되며, 해안을 따라 어촌, 어항, 해안도로, 친수경관, 해수욕장, 자연환경 등의 경관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오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해식애, 파식대, 시스택(sea-stack), 연안습지와 갯벌, 해안식생과 사구 등 자연환경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연안습지인 갯벌은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다양한 서식환경으로 생물다양성이 높다. 서해안에 펼쳐진 광활한 갯벌은 바다생물의 산란장이며 서식지이기도 하다. 과거 매립의 대상이었던 갯벌은 갯벌도립

공원과 습지보호지역,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3,358개의 섬이 바다와 갯벌에 흩어져 있으며, 전라남도에만 전국 섬의 66%인 2,219개의 섬이 있다. 과거 섬은 환해성(環海性), 격절성(隔絶性), 협소성(狹小性)을 특징으로 고립되고 낙후된 한계지역으로 인식되었다(김준, 2011). 그러나 최근 섬의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목적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연안 및 도시개발과 경관

걷기여행, 느린여행, 공정여행 등 최근의 관광객 욕구가 변화하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섬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육지와 뚝 떨어진 섬이야말로 복잡한 도시의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연안여행객 이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여객선을 타고 섬여행을 떠난 여행자 수는 1,4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5%인 1천만명이 관광객이었다. 개발에 뒤쳐져 소외되었던 섬이 오히려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특정도서, 해상국립공원, 가고 싶은 섬, 국토끝섬, 찾아가고 싶은 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섬가꾸기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양관광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섬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부터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1차와 2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시행한 결과, 도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도서지역의 낙후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현재는 3차 도

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섬 발전정책은 섬에 보다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어왔다. 섬 생태계는 육지 생태계보다 독립적이며 이 때문에 훨씬 예민하고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고령의 건설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섬이 지닌 독특한 문화와 자연 그리고 생활상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경관이 양호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관광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경관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연안 및 도서 경관관리 사례

최근 관광개발로 섬 경관이 큰 변화를 맞으며 경관보전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전남 신안군 증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도는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이다. 바닷물과 태양, 바람, 사람의 정성이 시간과 함께 만들어 내는 질 좋은 천일염과 염전,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최급급 리조트와 천혜의 모래사장을 보유한 해수욕장, 해송림 등이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과 도



엘도라도리조트



태평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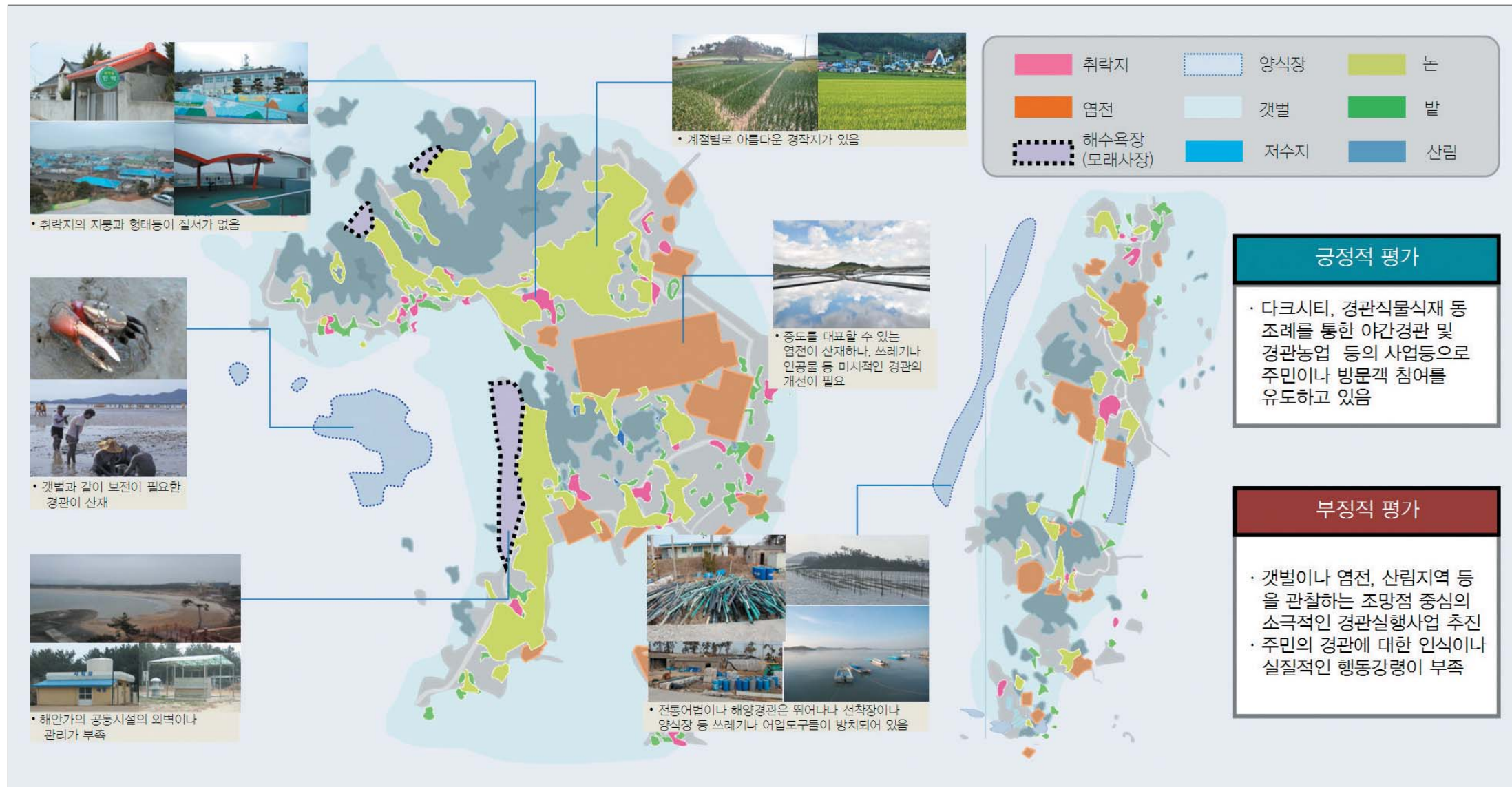
염습지와 염생식물

립공원으로 지정된 갯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자원이다.

그러나 2007년 약 5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은 슬로시티 지정이후 2008년 약 20만명, 증도대교가 개통한 2010년에는 약 80만 명으로 늘어났다. 발빠른 주민들은 식당과 펜션을 열어 경관을 해치기 시작했고 기존 주택도 민박용으로 층층이 이루어지며 마을경관이 변화하고 있다. 주민 숙원이었던 연육교가 개통됨으로써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난개발과 경관훼손, 자동차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개발과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지역에서는 슬로시티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지정에 걸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증도의 전통과 생활문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오래두고 천천히 변화하는 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와 주민참여형 경관보존활동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타 '자동차 없는 섬' 계획을 추진하며 '느려서 더 행복한 섬, 증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도 경관종합분석도



상업시설 난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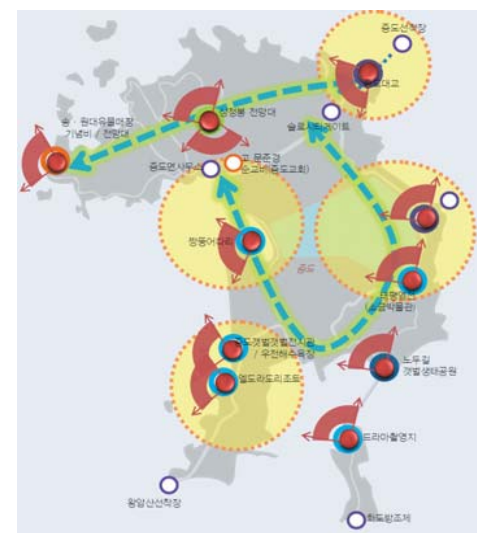
시설물로 인한 경관훼손



증도 상업시설 난개발 사례



증도 경관종합분석도



증도 경관계획



경관요소별 계획사례



경관요소별 계획사례

연안 및 도시 경관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의 출발점은 경관관리이다. 섬의 독특한 생활자원과 자연생태계,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경관관리이다(최영국, 2011). 연안과 도시의 독특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발은 결국 섬의 가치와 매력을 훼손하기 쉽다.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곧 엄격한 경관관리로 이어지고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연안과 도시지역 경관관리의 핵심은 섬의 가치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현명하게 활용(wise use)하는데 있다. 섬의 독특한 경관이 섬 발전의 기본이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섬의 외형을 지나치게 중시한 경관관리는 지양해야 한다. 외부인의 미적대상이나 관광요소 정비보다 섬주민의 삶에 바탕을 둔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경관관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경관관리에 있어 독자성, 차별성,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섬마다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섬경관관리 계획을 작성할 경우 일률적으로 경관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항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획일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나 가이드라인의 마련, 개발계획의 수립보다는 전체 지역경관관리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연안 및 도시의 경관과 생태문화

박문호 Park, Moon Ho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성종상 Sung, Jong Sang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

산업시대 이후 새로운 가능지로서 연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연안¹⁾은 3,358개의 도서, 특색있는 해안선 및 다양한 자연경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전체 산업단지의 78%와 55개의 무역항이 자리 잡고 있고,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생활터전도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터전이면서 국가적 경제성장의 토대인 셈이다.

공간적 개념으로서 연안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서 육역 환경과 해양 환경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환경적으로는 하나의 개체와 같은 동일체로 인식될 수도 있을 만큼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편 개념 정의상 연안에 포함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격리되어 있으며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토와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다. 도서지역이 대체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격리된 환경에서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온 탓이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인터넷 등으로 전국이 문화적 동질화 내지 획일화로 치달리는 동시대에 고유의 생태문화적 속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소중한 문화자산이기도 하다.

국토개발과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연안은 새로운 개발과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또는 녹색성장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현장으로 연안 및 도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2만불 시대를 돌파하면서 연안과 해양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가 관광의 새로운 출구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 및 도서는 산업, 지역개발, 문화, 생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연안 관리 관련법 체계

이에 정부도 이미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 외에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0)」, 「도서개발촉진법(2009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007 제정, 2011 개정)」 등 연안 및 도서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을 마련하고 정비함으로써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연안 개발 및 이용 증가 등의 수요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안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확정 발표된 남해안발전종합계획(2010)과 동·서해안발전종합계획(2010),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등은 이 같은 노력이 가시화된 사례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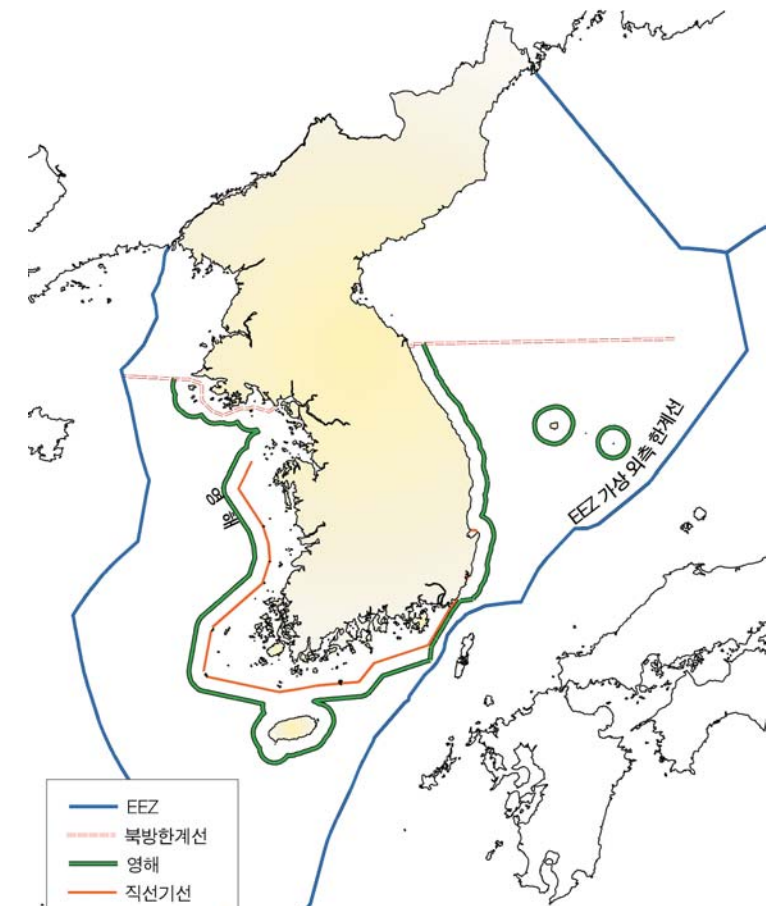
이 중에서 연안 관리의 기본법은 「연안관리법」이라 할 수 있는데, 2010년 개정된 「연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중분 및 세분화, 자연해안 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해 필요사항, 기타 연안 기본조사시 관련 기관 조사의 연계성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안해역은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 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용도해역을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해역기능구로 특성화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연해안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연안 환경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자연해안의 실태를 조사하여 권역별 및 지역별로 관리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세부시행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연안에 대해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의 보존과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연해안 보전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에 관한 절차, 범위, 복원계획 등을 연안 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실효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안 기본조사와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절차, 연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연안관리법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연안 해역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경관의 관리

연안경관의 관리는 「연안관리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할 때에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보전연안해역의 경관 보호구(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관리 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 각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지역관리계획에 연안경관과 관련한 경관보호구를 지정·관리하게 되는데 경관보호구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을 보전 및 조성하기 위한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11.5.6)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역방향으로 2,000m 내외의 영역에 적용된다.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상 해안경관 유형은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연안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학술적으로 보느냐 또는 법·제도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다. 학술적으로 보면 연안이란 바다와 육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생물종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로 정의 가능하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와 육지활동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만, 갯벌, 백사장, 삼각주, 기수역 등의 자연환경과 항구, 어촌, 부두, 도로 등의 인공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으로는 나라마다 그 정의가 다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안관리법」 (제 2조)에서 연안해역을 "비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까지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폭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범위 안의 육지지역을 말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국토해양부, 연안포털 <http://www.coast.kr>, 박정서·노백호·정재현 외(2008),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방안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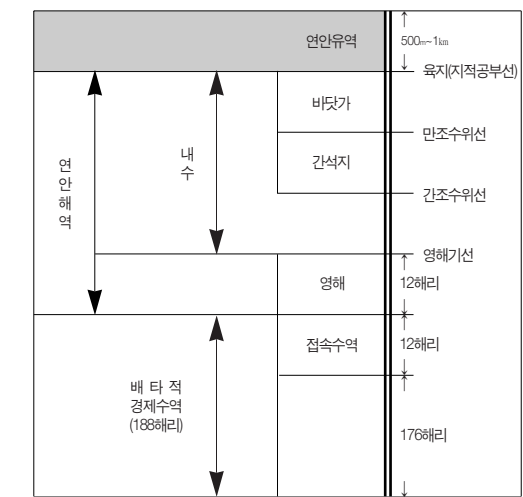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안 및 해역의 범위

(20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 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서 및 해양 개발에 뒤따를 수도 있을 환경이나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우수한 해안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명소로 꾸꾸어 나가기 위한 '해양경관조성사업'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서 경관과 생태문화의 관리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3,35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인 도서는 482개(2010년)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무인도서는 2,876개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인도서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유형을 구분하여 자연경관 및 생태의 보전뿐만 아니라 레저·관광 등 최근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절대보전 및 준보전 도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의 수면 중 영해를 제외한 수면으로 규정

향후의 연안 및 도서 관리 정책 방향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중요성과 이용증가, 연안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연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잘 개발하고 보전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新 연안디자인계획(NCDP)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연안관리의 비전은 안전한 연안(Safe Coast), 가치있는 연안(Superior Coast), 건강한 연안(Sound Coast)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토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연안이용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공간 조성·제공, 연안의 자연성 회복 및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 연안취약지역에 대한 생태적 재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육지에서의 경관과 디자인에 관한 중요성이 이제는 연안 및 도서 부분에도 확산·적용되어야 한다. 현재는 연안 및 도서에 적용되는 경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토해양부는 경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을 개정하여 경관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근거 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경관제도를 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토록하기 위해 '해양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부는 연안 및 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안 및 도서의 개발과 경관 및 생태문화의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자료제공 _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한기준 과장(연안계획과), 류중빈 사무관(해안관광팀)

연안해역의 용도구분 : 연안용도해역(4개) 및 연안해역기능구(19개)

◆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주요기능구)**

- 항만구 :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수욕장구 :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광물자원구 :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특수연안해역 :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 재해관리구 : 해일,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산업시설구 : 발전소,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 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생태보호구 :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공원구 :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어장구 :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

◆ **관리연안해역 :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 습지보호지역(10개소)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4개소)

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해양의 난개발 방지와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MPAs : Marine Protected Area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
-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 ◎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해양경관 관리 가이드라인(2011.5)

◆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현재 해안의 특색을 살린 경관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마련되었으며,
- ◎ 앞으로 해안권별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들이 난개발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의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 '10.5. 동·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 '10.12 수립

◆ **개발계획 수립시 친환경성, 개방성, 공공성, 간결성, 지역성 등을 중점 고려하게 되고, ①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②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③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게 된다.**

◆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 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결관리구역(500m)에서는 건축물 이격(setback), 배치·높이, 스카이라인 등 경관형성에 중요한 요소 등

을 차별화하여 고려하게 되며, 특히 보호구역은 보행자 중심의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 관리범위, 특별관리구역 등의 거리는 지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2011.2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147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정명칭	지정일자	면적	위치	관리사업	관리청
습지보호지역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218,15km)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2001.12.28	42km ²	전남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대	03년부터	목포청 ('08.1 람사등록)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002.12.28	1,44km ²	전남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 (신동마을)	05년부터	목포청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	2003.12.31	28km ²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	05년부터	여수청 ('06.1 람사등록)
보성별교 갯벌습지보호지역	2003.12.31	10,3km ²	전남 보성군 별교읍 호동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연안	06년부터	여수청 ('06.1 람사등록)
웅진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	2003.12.31	68,4km ²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09년부터	인천청
부안졸포만 갯벌습지보호지역	2006.12.05	4,9km ²	전북 부안군 졸포면, 보안면 일원	07년부터	군산청
고창 갯벌습지보호지역	2007.12.31	10,4km ²	전북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원	07년부터	군산청
서천 갯벌습지보호지역	2008.1.30	15,3km ²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면, 중천면 및 유부도 일대	09년부터	대전청
송도 갯벌습지보호지역	2009.12.31	6,11km ²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인천시 연수구청
증도 갯벌습지보호지역	2010.1.29	31,3km ²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	목포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70,37km ²)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2002.10.9	0,64km ²	충남 태안군원북면 신두리	05년부터	대전청
문섬등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2.11.5	13,684km ²	제주 서귀포시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05년부터	부산청
오륙도및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3.12.31	0,35km ²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9년부터	부산청
대이작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3.12.31	55,7km ²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리·승봉리 일원해역	06년부터	인천청

◆ **해안권별로는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해안은 절벽·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갯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 자연지형 등의 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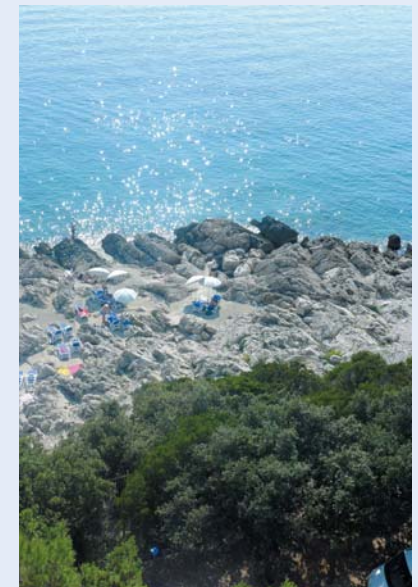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의 경관의 우수성과 훼손정도 등을 파악하여 개발 수준을 고려하게 된다.**

- ◎ 개발이후 토지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경관유형*을 분류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관평가를 통해 경관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관등급(1,2,3)을 설정하여,
- ※ 경관유형 : 시가지, 산업, 농어촌, 관광휴양, 역사문화, 자연, 생태경관
- ◎ 경관유형과 경관등급별로 제시된 조망,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기타 개발사업이나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하도록 행정지침으로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 ◎ 현재 입법추진 중인 경관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 가이드라인은 개정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 형성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참고로 경관법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형성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안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으로서 갯벌생태관광육성 및 해안도보여행길 발굴



◆ 주5일 근무와 교통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안관광·레저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안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안관광·레저를 활성화
- 수변지역을 활용한 수상레저·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

◆ 윈드시핑, 수상스키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스포츠를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다이빙 교육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다이빙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한편, 요트와 같은 선진국형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부산, 인천 등 6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도 개발

◆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창출

- 갯벌생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폐염전과 폐양식장 등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호와 학습기능이 연계된 갯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 백령도~울릉도(독도)를 잇는 해양영도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아름다운 해안도보여행길을 선정하여 자연친화적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특히, '해안누리길'로 명명된 도보여행길은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11개 시·도의 52개(505km) 노선 최종 선정
-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상품으로 개발

참고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기본방향 및 원칙

- 친환경성, 개방성, 공공성, 간결성, 지역성 등을 확보
- 개방성: 스카이라인 형성 등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 공공성: 해안선 주변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 간결성: 복잡한 디자인의 시설물 난립 방지 및 돌출 색상 지양
- 지역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재료 사용 및 외관의 형태 모색

2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결관리구역(500m)을 설정하고 구역별 관리기준 제시



3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해안권별로 지형적 특색을 보전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 (동해안) 해안절벽·석호 등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계획과 배후산지·바다조망 등을 고려한 입지계획 유도
- (서해안) 모래해안·갯벌·석호 등의 자연자원을 고려한 개발계획과 완경사지와 조화되도록 저층개발 유도
- (남해안)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리아스식 해안 및 해안단구 등의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유도

4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 경관등급을 구분하고, 경관유형에 따라 등급별 관리내용을 제시
- (경관유형) 시가지, 산업, 농어촌, 관광휴양, 역사문화, 자연, 생태 등의 7개 경관유형으로 구분
- (경관등급) 개발사업 시행 전에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경관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설정
- (관리내용) 경관유형·등급별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남 섬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는 신안군과 함께 섬 생태관광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안 증도 갯벌생태전시관에서 전국 최초로 '전남 섬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 섬 생태관광에 대한 홍보 및 건전한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남도 섬 명소화사업'을 통해 전남 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전남 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기초강연과 사례발표 등 2개 분야를 나눠 진행되었고, 기초강연은 제주길 한국생태관광협회 박사가 '섬 생태관광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홍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박사가

'신안군 섬 생태자원 소개'로 각각 진행했다. 사례발표는 존 쿠식(John Cusick) 하와이대 교수가 '환경교육 및 자원보전적 측면에서의 하와이 섬 생태관광 운영현황'을, 카노 다케시(Kanoo Takeshi) (주타이시 대표이사)가 '일본 낙도의 관광전략 방향'을, 윤미숙 푸른통영 21 사무처장이 '통영 연대도의 주민참여 사례'를, 신진범 인천발전연구원 박사가 '인천지역 섬 개발 사례'를 각각 소개하였고, 마지막날에는 참석자 국내·외 석학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전남 섬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남도에 전달하였다.

인천 섬, 해양관광 벨트로 조성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 분포돼 있는 섬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상품개발에 나선다. 시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는 천혜의 섬을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30여 개 섬을 대상으로 섬 관광벨트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인천지역 여행사와 함께 백령도를 대상으로 서해 최북단 안보관광지로 주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1박2일 관광코스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또한 백령도에 형성돼 있는 기암괴석 청정관광을 위해 2박3일 관광코스를 개발해 매일 운영키로 했으며, 인천내륙과 인접한 신도와 시도, 모도를 대

상으로 봄·여름 이야기섬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팔미도를 최초의 등대섬 유람여행으로 지칭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시는 특히 30여 개의 울창 울창한 군도도 구상돼 있는 인천 앞 바다 섬의 특장을 살려 이곳을 섬 관광벨트화로 개발할 계획이다. 관광벨트화 사업은 덕적도에서 굴업도-소아도-이작도-백이도-승봉도-울도 등 8개의 유인도를 대상으로 섬 감상 및 바다낚시, 해수욕장, 해상길 산책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다.

자연환경 우수 여수·보성 7개 섬 특정도서 지정

환경부는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결과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전남 여수·보성에 있는 7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했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섬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 가운데 여수 지마도, 토도, 보든아기섬, 소평여도, 가덕도 등 5개 섬은 해안절벽 등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보성의 해 1도와 해 2도는 작은 섬이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검은머리물떼새와 국제자연보호연맹 적색자료목록 취약종인 섬개개비의 번식지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근 어민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배치하기로 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1년 12월 3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13호의 주제는 '조경+도시농업'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펜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www.kila.or.kr
한국조경학회 kila96@chol.com
문의 02-565-2055

www.lafent.com
라펜트(주)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기간 2011년 12월 20일까지

HOT Issues & News

연안해역, 4개 용도로 나뉜다

토지를 도시·관리·농림·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연안해역도 2013년부터 보전연안,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간다.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해안 침식이나 침수에 대비해 해안사구, 갯벌 같은 바닷가를 '연안원충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년)'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은 영해 12해리까지의 바다(연안해역)와 바다에 인접한 500~1000m 이내의 육지(연안육역)를 통칭한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육지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에 따른 연안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연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획으로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2차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의 연안을 보전, 이용, 특수, 관리 연안 등 4개 용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어장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등

19개 기능구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전연안은 해양생태계보호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등으로 관리되며 이용연안은 항만, 항로, 어항, 레저관광,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활용된다. 또 갯벌, 사구 등의 바닷가를 연안원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곳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 침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바닷가로 방치된 곳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443만㎡ 규모의 바닷가 가운데 380만㎡에 이르는 1173개 바닷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아울러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59%에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나 2015년까지 264억 원을 투입해 모니터링 지역을 377곳으로 확대하고 해수욕장, 사구, 갯벌 지역의 침식 실태와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 도시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논란 확산
- 2011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 제8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 용산공원 기본계획 확정
- 제1회 조경시공인간담회
- 국가도시공원 법률개정안 국회접수
- 시서호호수공원 ASLA AWARD 수상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양홍모(사)한국조경학회장
편집위원장 | 성종삼(서울대)
책임편집위원 | 박문호(서울시립대)
편집위원 | 권진욱(영남대) 김이연(서울시립대)
박승진(조경설계Loca) 윤상준(재이름지기)
이유미(서울대) 최정민(순천대)

감사 | 유은자 백정희
2011년 11월 10일 발행 | 발행처 _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